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참여 동기 및 인정·보상 요인 분석

강종수^{1*}

¹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Factor Analysi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Recognition and Reward Affecting the Continuance Will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Jong-Soo Kang^{1*}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참여동기 및 인정보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참여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인정보상은 사회경제적 인정보상, 교육문화적 인정보상 그리고 경제적 인정보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고, 인정보상은 대체로 사회심리적 인정보상은 높지만 경제적 인정보상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참여동기 중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모두, 그리고 인정보상 중에서는 사회심리적 인정보상과 경제적 인정보상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동기 및 특히 경제적 인정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 of participation motivation, recognition and reward affecting the continuance will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For the research, participation motivation was consisted of egoistic motives and altruistic motives. Recognition and reward(R&R) were consisted of psychosocial R&R, educational cultural R&R, and economic R&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participation motivation was mixed, psychosocial R&R was higher than economic R&R. By using a multiple regression, egoistic motives and altruistic motiv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volunteers' continuance will, and psychosocial R&R and economic R&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volunteers' continuance will. This study finally discus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volunteer strategies on the results.

Key Words : Participation motivation, Recognition and reward, Continuance will of volunteering

1. 서론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다른 자원봉사자 집단에 비해 높은 인적자본과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한 집단이다. 또한 육체적인 건강함과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현재 가장 많은 참여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1-2]. 또한 대학생 자원봉사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및 봉사하고 나누는 대학문화가 강조되면서 대학 내의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봉사 학점이수 제도,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Corresponding Author : Kang, Jong-So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82-10-5550-6126 email: jskang@kangwon.ac.kr

Received November 9, 2012 Revised (1st November 20, 2012, 2nd December 3, 2012) Accepted December 6, 2012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질적 충실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1개월 이내 참여자가 2001년 48.2%에서 2003년 56.2%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1년 이상 장기참여자는 16.9%에서 6.7%로 현저히 낮아졌다. 참여시간 역시 100시간 이상 참여자는 21.3%에서 6.1%로 급감하였다[3].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단기참여는 확대되었으나 지속성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일시적이고 감성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가 쉽게 싫증을 내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4].

자원봉사활동의 중단은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 등에 투여한 경제적 자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관 직원들과 클라이언트의 신뢰감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고 아울러 중도탈락현상은 계속 남아있는 동료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조직이나 업무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호의적인 태도를 감소시키고 사기저하를 유발 시킬 수 있다[5].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은 자원 손실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양적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지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6-7].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원봉사자의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참여동기를 중시하는 개인 특성론적 관점과 동료 및 담당 직원 등과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대인 관계론적 관점, 그리고 기관시설의 관리체계와 업무인식도, 인정과 보상 등의 조직 특성론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내지 헌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는 봉사자의 참여동기와 시설기관의 인정·보상이라 할 수 있다. 참여동기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이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인정과 보상이 이러한 동기를 만족시켜 주면 더욱 오랫동안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동기는 참으로 다양하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동기가 다양한 만큼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후 수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기대하는 보상도 다양하다[8].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내지 자원봉사자를 사용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정·보상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보상의 필요성에 관해 국영희[9]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71.0%가 인정·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최은숙[10]의 연구에서는

5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인정·보상의 제공 목적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이강현[11]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유지를 위한 동기 부여’가 80%로 가장 주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이 과연 자원봉사자의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인정·보상 유형에 따라 그 영향관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등에 관해서는 연구결과에 이견이 많다. 가령 경제적 인정·보상의 필요성에 관해 ‘필요하지 않거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선행연구[8,10-12]가 있는 반면에 ‘필요하거나 영향력이 있다’는 선행연구[9,13-15] 역시 함께 제시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참여동기가 성인들과 다르고 그 효과 역시 다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동기를 분석하고 인정·보상이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충실도를 높이면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및 인정·보상 실태는 어떠한지,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동기 및 인정·보상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와 지속의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동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의욕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만큼[16]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높은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7]. 즉 참여동기는 왜 사람들이 타인을 돕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지의 이유를 밝혀준다[18].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에 대해 Francies[19]는 20여년간의 경험과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동기-욕구 프로파일’을 통해 경험욕구(자아 성장의 욕구), 사회적 책임감(이타적 동기 포함), 사회적 활동욕구(친교 및 경험에 대한 욕구), 타인 기대부응(의미 있는 주위 사람이나 조직의 압력에 대응), 사회적 인정(사회적 존경욕구), 사회적 교환 욕구(미래보상에 대한 욕구) 및 성취욕구(개인적 성취욕구)라는 7가지를 범주를 제시하여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McCurley and Linch[20]는 보상의 욕구, 성취의 욕구, 지배의 욕구, 변화의 욕구, 성장의 욕구, 소속의 욕구, 권력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독특함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의 보상체제도 이러

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활동은 지속과 창조성으로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Miller[21], Lattig[22], Ziemk[23] 등에 의해 참여동기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물론 참여동기는 개인마다 매우 복잡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작용한다. 또한 순수하게 이타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고, 봉사자 스스로도 동기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여간 이런 다양한 참여동기는 결국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크게 범주화 해 볼 수 있다.

우선 이타적 동기란 ‘주위의 누군가를 돕고 싶다’, ‘지역사회 혹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 또는 ‘무엇인가 개선과 변화를 원한다’ 등과 같은 사회적 성격을 많이 띠는 것으로[24], 타인이나 지역사회 등의 복지를 위한 비이기적인 관심과 배려 또는 헌신이라 할 수 있다[25]. 이러한 이타주의는 도움을 주는 주체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특징이 있다[18,26].

이기적 동기란 자아실현이나 성취 욕구 등 자아지향적인 동기를 말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의 참여동기가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기적이고 경험추구적인 동기 또는 욕구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이 있다[18,24,27]. 흔히 심리학 분야의 자아지향적 동기와 결부되는 개념이다[28].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Francies[19]와 McCurley and Linch[20]의 지적과 같이 참여동기가 충족되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에 더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참여 지속성과 일에 대한 헌신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경우 참여동기가 이기적 동기이거나 혹은 이타적 동기이거나 그 동기가 분명하고 이를 지각하면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 의지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2.2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과 지속의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승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유무형의 것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만족스럽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자원봉사자 개개인이 기여한 바에 대해 알아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회심리적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고 그 결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9-11,29].

자원봉사실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보상은 ‘실비보상’ 혹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용어들과 혼

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실비란 자원봉사자의 수고에 대한 임금지 대가를 제외한 실제 소용된 비용을 의미하여 통상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와 원료비, 교통비 및 식비 정도가 포함된다[11]. 인센티브란 가치에 대한 인정의 의미보다는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이란 뜻으로 물질적 인센티브와 내적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자원봉사활동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인정보상을 자원봉사활동 가치증진과 참여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자원봉사 인정 보상 문화 및 제도의 확립의 내용을 근거로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유무형의 모든 지원체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29].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은 사실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가령 조휘일[30]은 화폐를 기준으로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구분하였고, 박태영[31]은 인정보상의 수단 및 방법을 기준으로 공식적 보상과 비공식적 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성록[32]은 보다 세분화 해 공식적인 인정보상, 비공식적인 인정보상, 직무관련 보상, 사회적인 보상, 공적인정 보상으로 구분하였고, 정진석 등[29]은 사회적인 보상, 심리적인 보상, 경제적인 보상, 관리적인 보상으로, 최은숙[10]은 사회심리적 인정보상, 교육문화적 인정보상, 경제적 인정보상으로 구분하였다.

인정보상의 유형은 연구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이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9-10,13,33], 다만 인정보상의 유형에 따라 영향관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최은숙[10]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 한 결과 사회심리적 인정보상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교육문화적 인정보상요인 및 경제적 인정보상요인 순으로 활동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장지연[33]은 유형 구분 없이 분석한 결과 교육, 마일리지제도, 주차권, 감사표시, 표창, 식비 지급 순으로 활동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경[13]은 현물보상 및 비현물보상 모두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속적인 관심, 칭찬, 격려, 기관에 대한 소속감, 의미 있는 일에 공헌한다는 느낌 등 사회심리적 및 정서적 인정보상요인이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승혜[34]는 활동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인정욕구와 성취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영희[9]와 장지연[33]은 교육 및 새로운 기회의 제공 등도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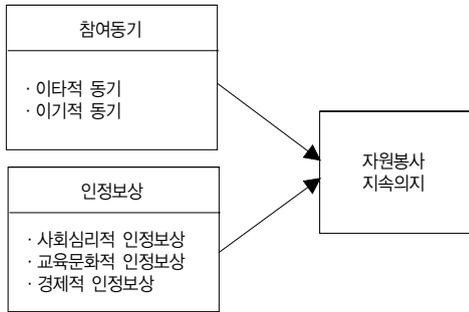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인정보상은 자원봉사 활동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인정보상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와 인정보상이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교내에서 유의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다. 구조화된 자기응답식 설문지를 300부 배포하여 288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96%), 무응답이 많거나 일관된 중앙값을 보이는 불성실 설문지 38부를 제외한 2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 자료의 분포적 특성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참여동기, 인정보상 등은 역시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고,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진단한 후에, 참여동기와 인정보상이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4 측정도구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류기형[5]의 도구를 대학생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주요 문항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등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평균의 함으로 복합지표(composite index)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liability

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자원봉사 참여 동기	7	.77
이타적 동기	3	.74
이기적 동기	4	.76
자원봉사 인정 보상	30	.95
사회심리적 인정보상	12	.92
교육문화적 인정보상	7	.89
경제적 인정보상	11	.83
자원봉사 지속의지	5	.86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이타적 동기에 관한 3문항과 이기적 동기에 관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타적 동기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이기적 동기는 ‘새로운 경험을 해 보고 싶어서’, ‘즐거울 때’,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및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등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alpha = .77$ 이고, 하위요인으로 이타적 동기는 $\alpha = .74$, 이기적 동기는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최은숙[10]이 개발한 총 30문항의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 척도는 사회심리적 인정보상에 관한 12문항, 교육문화적 인정보상에 관한 7문항, 경제적 인정보상에 관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받은 적이 없다(0)’, ‘1~2번(1)’, ‘3~4번(2)’, ‘5번 이상(3)’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전체가 Cronbach's $\alpha = .95$ 이었으며, 구성요인으로 사회심리적 인정보상은 $\alpha = .92$, 교육문화적 인정보상은 $\alpha = .89$, 경제적 인정보상은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대학생 250명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는 남학생이 166명(66.4%)으로 여학생이 84명(33.6%)에 비해 다수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59명(23.6%), 2학년은 163명(65.2%), 3학년은 26명(10.4%), 4학년은 2명(0.8%)이며, 전공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 학과가 137명(54.8%)으로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인문사회계열 48명(18.8%), 공학계열 26명(10.2%)이고 나머지 39명은 무응답이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변수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84	33.6
	여	166	66.4
연령	1학년	59	23.6
	2학년	163	65.2
	3학년	26	10.4
	4학년	2	0.8
전공 계열	보건의료계열	137	54.8
	인문사회계열	48	18.8
	공학계열	26	10.2
	무응답	39	15.2

4.2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우선 봉사경력은 6개월 미만이 114명(45.6%)이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0명(16.0%), 1년 이상 2년 미만은 51명(20.4%), 2년 이상은 45명(18.0%)로 나타나 절반 가량이 지난 6개월 이내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2년 이상 장기간 봉사경험을 갖고 있는 대학생은 많지 않았다. 자원봉사 횟수는 월 1회 이상이 121명으로 과반수 가까이 되고, 다음으로 월 2회 이상이 54명(21.6%), 주 1회가 49명(19.6%) 순으로 나타났다. 1회 참여시 봉사시간은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대부분인 213명(73.2%)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4명(21.6%), 7시간 이상은 13명(5.2%)로 나타났다.

[Table 3] The actual conditions of volunteering

변수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봉사경력	6개월 미만	114	45.6
	6개월~1년 미만	40	16.0
	1년~2년 미만	51	20.4
	2년 이상	45	18.0
자원봉사 횟수	월 1회 이상	121	48.4
	월 2회	54	21.6
	주 1회	49	19.6
	주 2회 이상	26	10.4
(1회 참여시) 봉사시간	1시간~3시간	213	73.2
	4시간~6시간	54	21.6
	7시간 이상	13	5.2

4.3 참여동기 및 인정보상 실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참여동기를 분석해 보면 다음 Table 4와 같이 ‘새로운 경험을 해 보고 싶어서’가 평균 3.78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싶어서’의 이타적 동기가 3.58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즐거기 때문에’ 3.39, ‘지역사회의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가 3.3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Participation motivation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이타적 동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3.58	.81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3.08	.81
	지역사회의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3.37	.99
이기적 동기	새로운 경험을 해 보고 싶어서	3.78	.79
	즐거기 때문에	3.39	.95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	3.29	.84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3.06	.99

또한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 실태를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Table 5와 같다.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에는 경제적 인정보상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요금 할인’이 223명(89.2%), ‘지역가맹점에서 물건 구입 시 할인 혜택 제공’이 211명(84.4%), ‘공공주차 시설 무료이용 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이 207명(8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소액 활동수당 제공’ 200명(80.0%),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기념품, 선물 등 제공’ 187명(74.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actual conditions of recognition and reward

변 수		받은 적이 없다	1~2번	3~4번	5번 이상
사회 심리적 인정 보상	1. 자부심·보람·성취감·자아 성장, 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	10 (4.0)	101 (40.4)	40 (16.0)	99 (39.6)
	2. 주변의 칭찬, 격려, 존경	17 (6.8)	110 (44.0)	60 (24.0)	63(25.2)
	3. 사회 경험	15 (6.0)	80 (32.0)	76 (30.4)	79 (31.6)
	4. 기관과 사회에의 소속감	52 (20.8)	68 (27.2)	83 (33.2)	47 (18.8)
	5. 유익한 사람들과의 만남 기회 및 영향력 행사	64 (25.6)	92 (36.8)	59 (23.6)	35 (14.0)
	6. 기관에서 직책을 부여 받고 회의 참석하고 발언하는 기회	109 (43.6)	69 (27.6)	32 (12.8)	40 (16.0)
	7. 원만한 대인관계 배우기	33 (13.2)	87 (34.8)	61 (24.4)	69 (27.6)
	8. 감사장,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등 표창	183 (73.2)	33 (13.2)	18 (7.2)	16 (6.4)
	9. 생일축하 카드, 감사 편지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감사 표시	146 (58.4)	54 (21.6)	26 (10.4)	24 (9.6)
	10. 정기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그에 따른 인정과 지원	123 (49.2)	64 (25.6)	31 (12.4)	32 (12.8)
	11. 자원봉사 유니폼, 자원봉사자 신분증과 기념벨지 등 표시물	148 (59.2)	46 (18.4)	25 (10.0)	31 (12.4)
	12. 기념행사, 각종 공식행사, 친교모임 등에 초청받는 기회	140 (56.0)	53 (21.2)	36 (14.4)	21 (8.4)
교육 문화적 인정보상	13.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	64 (25.6)	96 (38.4)	52 (20.8)	38 (15.2)
	14. 정기적인 연수회, 견학 교육 등의 기회	148 (59.2)	71 (28.4)	21 (8.4)	10 (4.0)
	15. 취미활동 프로그램 제공	136 (54.4)	66 (26.4)	31 (12.4)	17 (6.8)
	16. 교양강좌, 건강강좌 등 각종 강좌 개최 및 참가 기회	170 (68.0)	41 (16.4)	10 (4.0)	29 (11.6)
	17. 친목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친목 도모하는 기회	149 (59.6)	56 (22.4)	32 (12.8)	13 (5.2)
	18. 소식지 등 간행물 제공	140 (56.0)	49 (19.6)	16 (6.4)	45 (18.0)
경제적 인정보상	19. 자원봉사 전문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기회 제공	140 (56.0)	48 (19.2)	40 (16.0)	22 (8.8)
	20. 자원봉사 시간 기록, 마일리지 적립 제도	81 (32.4)	40 (16.0)	31 (12.4)	98 (39.2)
	21. 지역가맹점에서 물건 구입 시 할인 혜택 제공	211 (84.4)	22 (8.8)	8 (3.2)	9 (3.6)
	22. 대중교통요금 할인	223 (89.2)	23 (9.2)	3 (1.2)	1 (0.4)
	23. 공공주차 시설 무료이용 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	207 (82.8)	17 (6.8)	9 (3.6)	17 (6.8)
	24.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최소한의 경비 제공	105 (42.0)	73 (29.2)	50 (20.0)	22 (8.8)
	25. 식비, 다과, 간식 제공	45 (18.0)	62 (24.8)	53 (21.2)	90 (36.0)
	26. 소액 활동수당 제공	200 (80.0)	30 (12.0)	13 (5.2)	7 (2.8)
	27.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기념품, 선물 등 제공	187 (74.8)	30 (12.0)	24 (9.6)	9 (3.6)
	28. 교육비, 연수비, 행사 참가비 등 면제나 지급	176 (70.4)	43 (17.2)	20 (8.0)	11 (4.4)
	29. 위험이나 사고 대비 보험가입 제공	168 (67.2)	28 (11.2)	28 (11.2)	26 (10.4)
	30. 취업이나 학점 취득시 자원봉사 경력인정 가산점 부여	138 (55.2)	57 (22.8)	38 (15.2)	17 (6.8)

반면에 5번 이상 받았다는 응답에는 심리사회적 인정 보상인 ‘자부심·보람·성취감·자아 성장, 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이 99명(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적 보상인 ‘자원봉사 시간 기록, 마일리지 적립 제도’와 ‘식비, 다과, 간식 제공’이 각각 98명(39.2%)와 90명(36.0) 순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다시 사회심리적 인정 보상인 ‘사회 경험’과 ‘주변의 칭찬, 격려, 존경’이 79명(31.6%)와 63명(2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인정보상의 수단 중 마일리지 적립이나 간식 제공 등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인정보상이 낮

은 수준이고, 반면에 사회심리적 인정보상을 빈번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동기, 인정보상 및 지속의지 등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는 각 3.35 및 3.3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인정보상에서는 사회심리적 인정보상이

1.20으로 나타나 교육문화적 인정보상 및 경제적 인정보상 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속의지는 3.99로 리커트 5점척도의 중간값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왜도와 첨도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기준인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10미만에 해당하여 안정된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jor variable

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왜도	첨도	
참여 동기	이타적 동기	3.35	.67	1.00	4.67	-.80	.86
	이기적 동기	3.38	.71	1.00	5.00	-.31	.13
인정보상	사회심리적	1.20	.72	.00	3.00	.89	.24
	교육문화적	.77	.76	.00	3.00	1.22	.99
	경제적	.69	.54	.00	2.45	1.27	1.57
지속의지	3.99	.61	1.80	5.00	-.43	.22	

4.5 참여동기와 인정보상 및 지속의지와와의 관계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참여동기 및 인정보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동기를 투입한 참여동기모형, 인정보상 요인을 투입한 인정보상모형, 그리고 동시에 투입한 종합모형을 나누어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의지에 미치는 참여동기모형에서는 이타적 동기($\beta=.25, P<.001$)와 이기적 동기($\beta=.42, P<.05$)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며,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보다 더 지속의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able 7] Regression results for continuance will

		참여동기모형			인정보상모형			종합모형		
		β	t	VIF	β	t	VIF	β	t	VIF
참여 동기	(상수)		10.14						10.12***	
	이타적 동기	.25	4.35***	1.10				.24	4.38***	1.16
	이기적 동기	.42	7.32***	1.10				.36	5.56***	1.63
인정보상	(상수)					50.92***			-	
	사회심리적 인정보상				.44	4.23***	3.12	.29	2.50*	3.98
	교육문화적 인정보상				.13	1.31	2.97	.15	1.53	3.10
	경제적 인정보상				.32	3.34**	2.64	.23	3.42**	2.66
R2 (Adj. R2)		.29(.28)			.13(.12)			.36(.33)		
Durbin-Watson		1.66			1.72			1.69		
F		51.84***			12.67***			25.62***		

*p<.05, **p<.01, ***p<.001

모형설명력은 $R^2=.2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정보상모형에서는 사회심리적 인정보상($\beta=.44, P<.001$)와 경제적 인정보상($\beta=.32, P<.01$)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며, 교육문화적 인정보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 크기에서는 사회심리적 인정보상이 경제적 인정보상 보다 더 지속의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형간 회귀식의 영향력을 보면 참여동기모형 보다 인정보상모형이 낮게 나타나 지속의지에는 인정보상 보다 참여동기가 더 유의한 영향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동기와 인정보상을 모두 투입한 종합모형에서는 참여동기 중 이타적 동기($\beta=.24, P<.001$)와 이기적 동기($\beta=.36, P<.05$) 그리고 인정보상 중에서는 사회심리적 인정보상($\beta=.29, P<.001$)와 경제적 인정보상($\beta=.23, P<.01$)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설명력은 $R^2=.36$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는 참여동기와 인정보상 모두 영향을 미치고, 참여동기 측면에서는 이타적 동기가거나 이기적 동기가거나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다만 인정보상 측면에서는 사회심리적 인정보상과 경제적 인정보상이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동기와 인정보상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봉사경력은 절반 가량이 6개월 미만이고, 자원봉사 횟수 역시 절반 가량이 월 1회 이상인 정도이며, 1회 참여시 봉사시간은 3시간 미만이 73.2%에 이를 정도여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이다.

둘째, 참여동기 측면에서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 실태에서는 ‘마일리지 적립’이나 ‘간식 제공’ 등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인정보상의 정도가 매우 낮고, 반면에 심리사회적 인정보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참여동기 측면에서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모두 영향을 미치고, 인정보상 측면에서는 교육문화적 인정보상을 제외한 사회심리적 인정보상과 경제적 인정보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에 관한 선행연구[21-23]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이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9-10,13,33]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인정보상이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최은숙[10]의 연구에서는 교육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경우 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참여동기 측면에서는 크게 보아 이타적 동기이거나 이기적 동기이거나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여러 동기들이 서로 복합되어 있다는 사실로 보아 참여동기가 자원봉사자 사이에서도 참으로 다양하고 서너 가지 이상이 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여러 동기가 혼재되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참여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봉사자가 소속한 기관 및 조직에서 인정보상 등을 통한 노력과 관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참여동기 측면에서 이기적 동기는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대인관계를 넓히는 등 직업과 관련된 경험의 축적이나 장기적인 경력추구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므로 수행하는 업무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이므로 이들이 얻고자 하는 지식이나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되고,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타적 동기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자신의 봉사활동을 통해 실제 타인의 복지를

얼마나 향상시키고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더욱 동기부여된다. 따라서 자원봉사관리자는 봉사자의 참여동기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인정보상 측면에서는 선행의 연구에서는 주부나 노인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차원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와는 달리 대학생의 경우 사회심리적 인정보상과 경제적 인정보상이 지속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라 인정보상요인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다 차별화된 접근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심리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만족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고 칭찬과 격려를 받을수록 더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현재 실태분석에 매우 낮게 나타난 인정보상 방법들, 예를 들어 문자나 편지 등을 이용한 감사글을 보내거나, 기념행사나 각종 공식행사 등의 행사와 모임에 초대하거나, 감사장이나 우수봉사자 표창, 혹은 유니폼이나 기념배지 등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증진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인 노력과 프로그램의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 보상의 경우 실태 분석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이나 간식 제공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자료수집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정량적 조사이며, 자료 수집이 한 대학에서 횡단적으로 수집되어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참여동기 및 인정보상이외에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수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R. Gomez and M. Gunderson, "Volunteer Activity and the Demands of Work and Family", *Industrial Relations*, 58(4), pp. 573-589, 2003.
- [2] H. K. Oh and W. Kim, "Path Analysis of Determinants Influencing Sustainment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Welfare Policy*, 35, pp. 297-327, 2008.
- [3] Korean University Council For Social Service, Program for University Volunteer Learning, 2006.
- [4] M. S. Wo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rvice-Learning Outcomes of University Students",

-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3.
- [5] K. H. Ryu, "A Study on the Impact to Volunteering Satisfaction and Retention Will of Job Characteristic Factors", *Social Welfare Policy*, 35, pp. 221-243, 2008.
- [6] J. S. Kang, "Effect on the Work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Will by Volunteer's Job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 Contents*, 12(2), pp. 322-330, 2012, [Article\(CrossRefLink\)](#)
- [7] H. K. Oh,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Volunteer Activities by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8.
- [8] H. J. Kim and D. S. Lee, "The Effects of the Work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Will to Participation Motivation of Volunte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 Governance*, 18(1), pp. 243-270, 2011.
- [9] Y. H. Kuk, "A Study of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for Continuity in the voluntary activity", The Graduate School of Jeonj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10] E. S. Choi, "The Effect of Recognition & Rewards on the Longevity and Intensity of Volunteer Behaviors", The Graduate School of Pyeongtaek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8.
- [11] K. H. Lee and J. K. Jung, "A Study on the Korea Practice of Volunteer Recognition and Reward", *Journal of Non-Profit Research*, 5(1), pp. 101-135, 2006.
- [12] Y. H. Kim, "Research to Revitalize Volunteering Activity by Awarding Authorization and Compens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2006.
- [13] S. K.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retainment activity of special welfare volunteers",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2.
- [14] H. S. Kim, "A Study on the Impact of an Incentive System for Volunteers on their Services : Primarily on volunteer information center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Incheon, 2005.
- [15] M. K. Jo, "A Improvement Plan about the Recognition and Reward of Volunteer Service Work",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16] J. L. Hackman and G. R. Oldham,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 pp. 250-279, 1976. [Article\(CrossRefLink\)](#)
- [17] H. P. Sims, A. D. Szilagyi, and R. T. Keller, "The measurement of Job Characteristic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2), pp. 195-212, 1976, [Article\(CrossRefLink\)](#)
- [18] L. A. Penner, A. R. Midili, and J. Kegelmeyer, "Beyond Job Attitudes: A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 on the Cause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uman Performance*, 10(2), pp. 111-131, 1997, [Article\(CrossRefLink\)](#)
- [19] G. R. Francies, *The Volunteer Needs Profile*, Wisconsin University, 1985.
- [20] S. McCurley and R. Lynch, *Volunteer Management: Mobilizing all the Resource of the Community*, IL: Heritage Arts Publishing, 1996.
- [21] L. E. Miller, "Understanding the Motivation of Volunteers: An Examination of Personality Difference and Characteristics of Volunteers' Paid Employment,"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4(2-3), pp. 112-122, 1985, [Article\(CrossRefLink\)](#)
- [22] J. K. Latting, "Motivational Differences Between Black and White Volunteer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9(2), pp. 121-136, [Article\(CrossRefLink\)](#)
- [23] S. Ziemk, "Economic Analysis of Volunteers' Motivation: A cross-country study", *The Journal of Social-Economics*, 35, pp. 532-555, [Article\(CrossRefLink\)](#)
- [24] H. J. Kim and D. S. Lee, "The Effects on the Work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Will to Participation Motivation of Volunteers in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Korea Governance Review*, 18(1), pp. 243-270, 2011.
- [25] U. J. Wiersma, "The Effects of Extrinsic Reward in Intrinsic Motiva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5(2), pp. 101-115, 1992, [Article\(CrossRefLink\)](#)
- [26] J. W. Kim and Y. J. Kim,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onator's Giving Behavior to the Charitable Organization", *Korea Management Review*, 37(3), pp. 629-658, 2008.
- [27] D. B. Kim, *Civil Society and Volunteering*, Seoul: Hakjisa.
- [28] S. Hatch, *Volunteers: Pattern and Motives*, England: The Volunteer Center, 1983.
- [29] J. S. Jung, M. J. Jo and H. T. Chae, "A Study of Recognition and Reward Factors on Positiveness and Durability of Volunteer Activit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8, pp. 95-112, 2009.
- [30] H. I. J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Process of Volunteer Program",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2, pp.

103-140, 1996.

- [31] T. Y. Park, "A Study on the Issues of Volunteer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Community Social Welfar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15(1), pp. 123-143, 2009.
- [32] S. R. Lee, "The influence of multi-dimensional motive on volunteer ac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2.
- [33] J. Y. Jang,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and Reward of Volunteer Activity on Its Continuity: Comparison of the View point between Volunteer Managers and Volunteer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Uid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34] S. H. Hong,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and the Duration of the Social Welfare Volunteer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5.

강 종 수(Jong-Soo Kang)

[정회원]



- 1998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산업복지학과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1998년 3월 ~ 2008년 2월 : 노무법인 정평 대표노무사
- 2008년 2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